

변화한 사회, MZ세대에게 사랑이란?

2022 한국체대 학생들의 성 및 연애 가치관

박소영 기자 202220024@m365.knsu.ac.kr

뜨거운 화제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너 〈환승연애〉 봐?” 최근 청년층의 대화 주제에는 연애 리얼리티 예능(이하 연애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는다. ‘하트시그널’, ‘환승연애’ 등 일반인들의 연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는 헤어질 위기의 커플들이 출연해 서로의 연인을 바꾸게 만드는 ‘체인지 데이즈’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같이 여러 성 지향성 및 정체성을 가진 출연자가 등장하는 ‘메리퀴어’ 등 다양한 주제의 연애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지상파 케이블 채널이나 OTT 등에서 방영된 한국 연애 관련 프로그램은 무려 30개가 넘는다. 또한, 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10월 1주차 ‘TV-OTT 통합 화제성’ 조사 결과, 연애 프로그램인 ‘환승연애2’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도 SNS의 팔로워 수가 급등하는 등 연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애 프로그램의 흥행 원인은?

사실 연애 프로그램은 새로 탄생한 방송



티빙에서 스트리밍하는 프로그램 〈환승연애2〉의 한 장면이다.



웨이브(Wave)에서 스트리밍하는 프로그램 〈잠만 자는 사이〉의 한 장면이다.

콘텐츠는 아니다. ‘마녀사냥’, ‘짝’ 등 연애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방송했고, 꽤 흥행하는 콘텐츠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연애 프로그램 유행이 다시 시작된 이유가 뭘까?

소비 가능한 콘텐츠의 측면으로 봤을 때 연애 프로그램은 현실감이 높다. 드라마나 영화 등 허구의 작품이 아닌 실제 출연자들의 숨김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출연자들이 연애인이 아니라 시청자와 같은 일반인이라는 점도 현실감을 느끼

게 한다. 거기다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인 ‘사랑’에서 파생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시청자의 과몰입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자극적인 설정으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매일 다른 파트너와 잠을 자는 연애 프로그램 ‘잠만 자는 사이’처럼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OTT 서비스나 유료 결제 서비스도 한 몫한다.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 및 연애 가치관 변화가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대리 만족’을 그 이유로 말한다. 대리 만족이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부터 얻는 만족으로, 말 그대로 타인의 행위 등을 보고 들으며 만족을 얻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청년층은 스펙 쌓기, 취업, 승진 등 다양한 이유로 바쁜 삶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연애를 시작하면 시간적, 금전적,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은 소모가 필요하기에 일찍이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들은 직접 연애하는 것보

다 영상을 통해 타인의 연애를 소비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우며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큰 부담 없이 ‘n회성’으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 및 연애 가치관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애 프로그램의 주 시청 연령층인 우리 대학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기자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3일간, 한국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및 연애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트시그널’ - 설렘의 시작

‘하트시그널’은 다양한 남녀들이 시그널 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썸(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을 타고,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소주제는 우리의 하트시그널을 떠올리게 하는 썸, 연애 초기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높은 연락의 빈도	39.5%(47명)
찾은 만남의 유무	24.4%(29명)
질투의 유무	18.5%(22명)
손잡기, 허그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	15.1%(18명)
기타: 설레는 감정, 신경쓰이고 챙겨주고 싶음, 서로 느끼는 마음	0.8%(1명)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던 공간은 어디인가요?

학교나 학원	71.4%(85명)
직장(알바, 대외활동 포함)	15.1%(18명)
소개팅, 미팅	5%(6명)
온라인(SNS, 어플 등)	4.2%(5명)
술집이나 클럽	0.8%(1명)
기타: 운동하는 곳, 없음, 살다보니 만나짐	0.8%(1명)

당신은 온라인을 통한 연락(SNS, 어플 등)만으로 어디까지 관계 진전이 가능한가요?

친구	39.5%(47명)
지인	24.4%(29명)
썸	22.7%(27명)
연애	9.2%(11명)
기타: 이를 아는 사람, 결혼, 그런 거 안함, 안 됨	0.8%(1명)

‘찾은 만남의 유무’보다 ‘높은 연락의 빈도’가 썸의 기준이라는 답변이 많다는 점과 온라인을 통한 연락만으로 썸, 연애까지의 관계 진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약 32%나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대인들의 이전과는 달린 연애의 방식을 볼 수 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해진 MZ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한 대인관계에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1996년~2002년생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직접 만남 선호 비율은 전 년과 비교해 약 10% 줄었고, 모바일 메시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약 6% 늘었다.

‘러브캐처’ - 진실 혹은 거짓

‘러브캐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지,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맞추는 ‘추리 사랑 게임’ 컨셉으로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재력, 시간 등을 고려하며 사랑을 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도전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소주제에서는 변화한 사회문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 우리의 성 및 연애관과 관련된 질문들

로 구성하였다. 한국체대 학생들은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과거의 전통적인 성 및 연애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이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인간관계 대면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격 검사인 ‘MBTI’ 등을 크게 믿으며, 자신과 성격이 잘 맞다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찾아 만남의 효율을 높이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잠만 자는 사이’ - 순간의 진심

소제목만으로도 느낌이 오듯이 이번 소주제는 뜨거운 밤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MZ세대의 성 인식 및 문화와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원나잇 스탠드(One night Stand, 원나잇): 처음 만난 사람과의 하룻밤 성관계, 혼외정사라고도 함.

‘원나잇’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예	25.2%(30명)
아직까지 경험은 없지만 할 의향이 있다.	10.9%(13명)
현재도 경험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63.9%(76명)

처음 보는 사람과 ‘원나잇’ 후 친구/연인/파트너가 된 경험이 있나요?

아니오	85.7%(102명)
예, 친구나 지인이 된 적이 있다.	10.1%(12명)
예, 파트너가 된 적이 있다.	3.4%(4명)
예, 연인이 된 적이 있다.	3.4%(4명)

당신에게 성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랑의 표현	66.4%(79명)
쾌락 추구	27.7%(33명)
종족 번식을 위한 행위	1.7%(2명)
기타: 셋 다, 사랑 표현과 쾌락 추구, 부가적인 것, 마음에는 들지만 사귀기는 싫을 때	0.8%(1명)

애인/파트너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대화를 나누나요?

아니오	47.1%(56명)
예, 구체적이진 않지만 얘기해본 적은 있다.	45.4%(54명)
예, 구체적이진 않지만 얘기해본 적은 있다.	5.9%(7명)
기타: 예, 하지만 계획은 없다, 불상사에 대한 이야기	0.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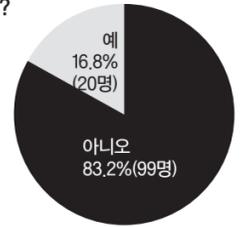


애인 혹은 파트너와 ‘원치 않은 임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다’는 질문에 약 53%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이는 청년층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르고자 하는 목표나 성취에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세워두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보인다.

‘환승연애’ - 세상에 개편이니?

‘환승연애’는 헤어진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혹은 이전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취지의 연애 프로그램이다. 이번 소주제에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사랑의 끝을 의미하는 이별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당신의 전애인과 절친이 사귀더라도 아무렇지 않나요?



전애인이 가져왔으면 하는 이별 공백 기간은 얼마인가요?

N개월	61.3%(73명)
없어도 된다.	15.1%(18명)
N주	11.8%(14명)
N년	7.6%(9명)
N일	1.7%(2명)
기타	0.8%(1명)

사랑한 만큼, 최소 헤어질 일 수 이상, 생각해보지 않음

헤어진 연인과 재결합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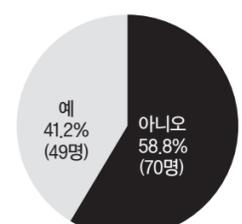
때에 따라 다르다.	73.9%(88명)
부정적이다.	16.8%(20명)
긍정적이다.	9.2%(11명)

설문조사 결과, 성 및 연애관의 많은 변화가 있지만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않는다’라는 점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학생들의 모습을 대변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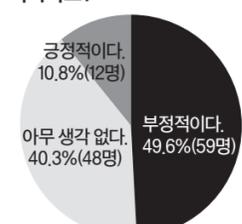
기자생각

전통적이든 진보적이든 성 및 연애 가치관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전통을 지킬 필요도, 변화를 따라갈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사랑’, ‘연애’, ‘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깊게 고민해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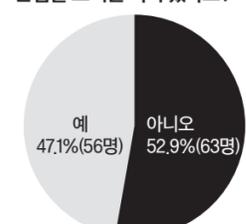
‘데이트 메이트’를 가지고 싶은가요?



당신은 어플(ex.틴더, 글램 등)을 통한 만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mbti 등 성격 검사 결과가 당신과 잘 맞는 사람에게 이성적 관심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데이트 메이트(Date-Mate): 친구보다 가깝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지만 사귀지는 않는 관계